

영어영미문화전공 프레젠테이션 대회 지침서

Prof. Gord Sellar, 2009

(번역: 2011 년 2 학기 '번역의 이론과 실제' 수강학우들)

PART 1: 프레젠테이션의 구성

1. 주제 선정하기 (Choosing a Topic)

발표를 잘 하려면 우선 주제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주제들은, 주제로는 적당하지 않기도 하므로 알맞은 주제를 선택하기 위해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 소책자에는 알맞지 않은 주제에 관한 예를 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주제 목록”이 포함되어 있으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발표자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 지루하지 않고 흥미로운 주제이어야 합니다.
- 자주 발표되는 흔한 주제가 아닌 특색 있는 주제이어야 합니다.
- 개개인이 조사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는 주제이어야 합니다.
- 너무 광범위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예 제도’에 대해서 발표하는 것은 너무 광범위한 주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 시대, 어떤 맥락에서 조사, 발표를 할 것인지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너무 어렵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1970 년대 런던의 회교도 이민 여성들의 사회적 성 역할의 변화”와 같은 주제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학부생이 다룰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시사적인 주제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만약 그 주제를 자신만의 관점으로 창의적으로 다루지 않는다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9~2010 년에 한국에서 일어난 성범죄 사건들이 이슈가 된 후 많은 학생들이 성범죄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법을 비교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제가 너무 빈번하게 다루어진 나머지 참신성이 떨어지기 시작했으며 특히 미국의 성범죄 대처법에 대해서 미국의 성범죄 관련 사안도 시정할 부분이 분명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편협하고 편향된 시각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주제를 선정하는 좋은 방법은 본인이 수업시간에 공부했던 것을 떠올려보고 관심을 끌었던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발표자가 한 어학 강의에서 방언에 대해 공부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때 배웠던, 영어권 국가의 각 지역들 사이에 존재하는 방언들의 차이 또는 대중매체가 방언이 퇴색되는데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등에 대해 발표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또는 영어권 국가의 대중문화 요소들에 대해서 배웠다면 미국의 텔레비전에서는 보편적으로 다뤄지는 테마이지만 한국 텔레비전에서는 생소한 것들에 대해 발표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니면, 미디어에 관련된 수업을 들었다면, 국제적 영화 배급의 정책에 대해 더 알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수업시간 중에 흥미로웠던 어떤 것이든 발표를 위한 좋은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주제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과 영국의 황금 시간대 TV 프로그램의 내러티브(이야기) 장르의 사용의 차이
- 한국에서 서양 힙합 가수들의 대중화에 있어 인종이 미친 영향
- 미국의 금주법이 현대 서구의 주류 소비 성향에 끼친 영향
- 문화 학습의 일환으로 외국의 연예 미디어들을 무비판적으로 이용하는 것의 위험성
- 영국의 지역 사회 정체성에서 지역 방언이 하는 역할

주제를 반드시 미국, 혹은 영어권 사회에 한정 지어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회에서 영어를 세계 공용어(또는 학문적인 언어)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논의나 한국과 관련된 사회문제가 비영어권 국가에서는 어떻게 처리되어 왔는지에 대해 다루는 것 또한 주제로 적합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교통법이든 브라질의 교육시스템이든 전부 주제로 적합할 수 있으니 비교와 주제의 대상으로 미국 외에 다른 나라를 선택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라도 생각하고 있던 주제를 관련 교수님들과 상의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 여러분이 후보로 꼽았던 주제들이 프레젠테이션에 적합한 주제가 될 수 있을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아직 주제를 확실하게 결정하지는 못했지만 생각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구하도록 하세요. 그러나 최소한 주제를 몇 가지 정도는 생각을 해 놓고 면담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일단, 주제가 정해졌다면, 본격적인 프레젠테이션 준비에 돌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발표자는 자신이 선정한 주제의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숙지하고 있어야

하므로, 그 분야의 사전 조사는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제를 선택한 뒤에는 본격적인 연구조사 활동에 들어갑니다.

2. 사전조사 지침 (Research Guidelines)

여러 학생들은 조사하는 것을 논거를 뒷받침 할 인용구를 찾는 단순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조사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주제에 관한 지식을 얻고 그에 대해 자신이 가진 막연한 추측과 잘못된 지식을 없애기 위함
- 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얻기 위함
- 전문가의 의견 및 사실적 근거 하에 자신의 의견을 도출해내기 위함

전문가들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전문가들이 옳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을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것에 항상 동의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그 주제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의견에 반대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위키피디아나 다른 웹사이트를 검색하는 것은 올바른 자료조사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위키피디아를 본격적인 조사를 위한 자료수집 출발점으로 사용할 수는 있어도 이에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위키피디아에 나온 내용의 근거가 되는 각주나 주석을 꼼꼼히 살피고 그 진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위키피디아의 내용을 근거로 발표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올바른 자료조사법이 아닙니다.

프레젠테이션의 연구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한두 번 정도는 도서관에 가야 합니다. 자료조사 근거로는 학술지의 논문, 저서, 혹은 전문가 의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어느 자료든지 100% 믿을 만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심사를 거친 논문집, 저서, 해당분야의 전문가 의견은 TV 다큐멘터리, 웹사이트, 잡지나 신문 기사보다는 훨씬 신빙성이 높습니다. TV 다큐멘터리만을 근거로 수집한 자료는 매우 빈약한 자료수집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제에 대해 더 많이 조사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을 자주 드나들면서 자료 수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제와 연관된 학술적 글 찾기가 어려울 땐, "Google Scholar"(<http://scholar.google.com/>)사이트를 이용해 보십시오. 또한 학교

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없는 정보들은 다른 대학 도서관 사이트에 접속하여 다운을 받거나, 다른 대학에 있는 친구들을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여 광범위하고 다양한 기사를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적합한 자료를 구하지 못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1. 가능하다면 그 분야의 전문가와 인터뷰 해보십시오.
2. 스스로 자료를 조사해보십시오. 예를 들어, 반 친구들이나 온라인으로 비공식적인 설문조사를 하는 형태로 말입니다.
3. 학교 도서관의 사서 선생님께 도움을 구해보십시오. 유용한 자료를 찾도록 안내해 주실 겁니다.
4. 교수님을 찾아가 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의 출처를 꼭 밝혀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표절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프레젠테이션 도중에 혹은 마친 후에 어디서 인용했는지 밝히기 바랍니다.

3. 논제 구성하기(Formulating a Thesis)

“논제”는 프레젠테이션의 핵심입니다. 좋은 발표를 위해서는 논제에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고 분명히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목적도 요점도 없는 무의미한 발표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논제는 ‘질문’이 아닙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겁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의 백인과 흑인 재즈음악인들의 인기도'라는 주제 정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발표를 구성해보고자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 '한국에서는 백인 재즈 연주자들이 흑인 연주자들보다 더 인기가 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발표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사실 내지 의견을 진술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한 자료조사는 발표자가 위와 같은 의견을 뒷받침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과연 이 논제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진지하게 “그래서 이게 뭐 어떨다는 거지”라고 자문해 보는 것이죠.

왜 이 주제가 중요할까요? 과연 이 주제가 논할 만한 가치가 있는 주제일까요? 음악인의 인종이 인기를 좌우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그 사회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 외에도 그 구성원들의 태도, 미디어의 전파 방식이나 접근성 등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왜 한국서 인기있는 미국인 재즈 뮤지션들은 대부분 백인일까?

아직 논제(thesis)를 형성한 단계가 아닙니다. 단지 질문을 던져본 것 뿐이죠.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논제는 ‘질문’이 아닙니다. 논제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겁니다.

자신이 던진 질문에 답을 함으로써 논제(thesis)를 만들 수 있습니다.

- 미국의 재즈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즈 음악인들은 주로 흑인이었으나, 한국에서 널리 인기를 모으고 있는 미국의 재즈 음악인은 백인이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일까?

아직 주어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기에, 위의 질문 역시 논제를 만들어 가는 하나의 단계에 불과합니다. 다음과 같이 질문에 더 살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 미국의 재즈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즈 음악인들은 주로 흑인이었으나, 한국에서 널리 인기를 모으고 있는 미국의 재즈 음악인은 Bill Evans, Pat Metheny, Chet Baker 와 같은 백인이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일까?

이제 자료조사를 마친 다음에는 질문에 답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 미국의 재즈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즈 음악인들은 주로 흑인이었으나, 한국에서 널리 인기를 모으고 있는 미국의 재즈 음악인은 Bill Evans, Pat Metheny, Chet Baker 와 같은 백인이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3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 재즈 음악이 역사적으로 한국에 어떻게 알려지게 되었는가? 둘째, 인종에 대한 한국인들의 전통적 태도 그리고 셋째, 보통 백인 재즈음악가들이

연주하는 보수적이고 전통적 스타일의 재즈 음악이 한국인에게 어떤 매력으로 다가오는가이다.

위와 같은 논제 단락(thesis paragraph)을 토대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면 됩니다.

발표의 논제는?

- 미국의 재즈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즈 음악인들은 주로 흑인이었으나, 한국에서 널리 인기를 모으고 있는 미국의 재즈 음악인은 Bill Evans, Pat Metheny, Chet Baker 와 같은 백인이다.

혹은 더 간단하게 나간다면,

미국의 재즈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즈 음악인들은 주로 흑인이었으나, 한국에서 널리 인기를 모으고 있는 미국의 재즈 음악인은 백인이다.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자료는?

- 이 논제에 대한 근거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역사적으로 한국에 재즈 음악이 전파되었던 방식. 둘째, 인종에 대한 한국인의 전통적인 태도. 셋째, 백인에 의해 연주되는 전통적인 재즈 스타일에 대한 한국인의 선호.

논제와 기본 뒷받침 근거들이 준비가 되었을 때가 교수님께 이 논제와 근거들로 프레젠테이션을 계속 진행시켜도 될지 여쭙보고 피드백을 받기에 좋은 시점입니다. 이 때, 교수님은 학생의 논제에서 잘못된 부분이나 비논리적인 가정을 짚어줄 수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한 조사가 좀 더 필요한지에 대해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이 논제의 범위를 좁히거나 늘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혹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됐다 하더라도 크게 곤란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연설문을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고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논제를 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갖춰 놓았기 때문입니다.

4. Building Your Argument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발표에는 3 가지 요소가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give necessary information), 자신의 주장을 설명하고(explain your arguments), 결론을 맺는다(conclude).

Giving Necessary Background Information

앞서 든 예를 살펴보면, 과연 청중들은 모두 미국의 재즈음악에 관한 배경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을까요?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발표자가 그 자리에서 재즈의 역사를 모조리 읊을 필요는 없지만, 필수적인 정보들은 미리 알려주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백인인 Bill Evans 와 흑인인 Thelonious Monk 와 같은 두 명의 재즈 음악가의 사진을 보여주면 여러분의 청중들이 그들 인종의 차이점을 알게 될 것이고, 또한 나중에 논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들 각각의 음악을 아주 짧게 들려주어도 좋습니다. 다만 그 길이가 너무 길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동영상은 세 번째 논제를 설명할 때 공개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Explaining Your Arguments

다음 세 가지 근거를 탐구하고 설명해야 한다.

1. 역사적으로 한국에 재즈 음악이 전파되었던 방식
2. 인종에 대한 한국인의 전통적인 태도 (특히 흑인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3. 백인에 의해 연주되는 전통적인 재즈 스타일에 대한 한국인의 선호

이제 위 세가지 근거를 예시와 증거를 통해 명료하게 제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설명을 할 때, 예시를 들어 설명하면 청중들의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흑인 재즈 음악가 텔로니오스 몽크와 비교한 백인 재즈 음악가 빌 에반스의 인기를 언급하는 것은 그냥 모호하게 백인과 흑인 재즈 음악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한 세 번째 논거를 설명할 때 빌 에반스와 텔로니어스 몽크의 음악을 구체적인 예로 들어 비교하는 것 또한 논거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거란 여러분이 주장하는 바가 진실이며, 정확할 뿐만 아니라, 일리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청중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한국에서 백인 재즈 음악가와 흑인 재즈 음악가의 음반 판매수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다면, 훌륭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반가게 마다 몽크와 에반스의 앨범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 역시 여러분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글에서 한글로 두 재즈 음악가의 이름을 검색해 본다면 대략적인 검색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수치가 여러분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두 음악가의 대중적인 인기를 살펴볼 수 있는 흥미로운 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증거와 예시, 어느 하나 빠뜨리지 않고 제시할 때, 청중들은 발표의 논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통계치, 도표, 음악이나 영상물 등과 같은 여러 종류의 증거들을 제시함으로써 청중들은 비로소 당신이 말하는 바, 즉 요점이 무엇인지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점: 음악과 영상물은 짧게 첨부할 것)

여러분 자신에게 ‘과연 내가 사용한 인용문이나 통계자료의 증거들이 나의 논거를 뒷받침해주고 있는가?’라고 자문해봅시다. 만약 증거가 주장을 뒷받침 해주지 않는다면, 주장자체가 잘못 되었거나 필요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한 것일 겁니다.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으로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 중 적어도 한 개 정도는 누구나가 수궁할 만한 공신력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발표자는 자신의 의견이 사견(私見)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거에 기초한 의견이라는 것을 확인시킬 수 있습니다.

Concluding Your Presentation

발표가 거의 끝나갈 쯤에는 청중들에게 자신의 요점을 상기시켜줘야 합니다. 청중들이 자신의 발표에서 무엇을 기억하길 원하는가? 발표의 논제와 기본적인 논거들을 기억하길 원할 것입니다. 청중들이 이를 기억 하고 있다면, 그리고 발표자의 주장이 매우 잘 뒷받침 되어 있다면, 발표는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앞서 언급했던 ‘그래서 뭐 어떻다는 거지(So what)?’ 라고 반문할 만한 여지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

백인 재즈 뮤지션이 한국에선 가장 유명한데 그게 뭐 어쨌단 말 입니까? 분명히 뭔가 중요한 이유가 있으니 발표를 하셨을 겁니다. 그러므로 발표자는 발표를 마무리할 즈음에 자신이 다룬 내용이 지니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발표를 끝맺음 할 수 있습니다.

- 백인 재즈 음악인들에게 지나치게 편향되는 것은 우리(한국인)가 미국의 음악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음악인을 놓치는 우를 범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흑인들이야말로 “재즈”라는 음악 형식을 만들어서 발달시켜 온 주역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재즈의 원조인 유명 흑인 재즈 음악인들의 음악을 더 보급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백인 중심의 엔터테인먼트 매체에만 초점을 두는 것은 미국의 인종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뿐 아니라, 한국인들이 미국 대중 문화 혹은 세계 대중 문화를 접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지금까지 프레젠테이션 구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이는 프레젠테이션 뿐만 아니라 에세이, 보고서, 혹은 기사를 작성하는데도 적용될 수 있는 지침입니다.

5. 올바른 인용법 및 표절 예방법

표절이란, 어떤 사람의 주장을 마치 자신의 주장인 것처럼 사용한 경우를 말합니다. 표절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표절을 한 경우에는 프레젠테이션 콘테스트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표절에 관한 안내문을 별첨했으니 읽어보고 반드시 참고하기 바랍니다.

다행인 것은 표절을 피하는 법이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원칙만 지킨다면 표절 시비에 휘말릴 우려는 없을 것입니다.

1. 어떤 내용을 글자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가 누구인가 하는 등의 소개와 설명을 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형식을 따르면 됩니다.

In 자료 서적의 표제, 저자, argues that 자료 논거의 핵심. She/He writes: “인용문” (쪽수). 저자 is arguing that 논거를 자신의 방식으로 설명.

Here's an example:

In Men of Tomorrow: Geeks, Gangsters, and the Birth of the Comic Book, Gerard Jones argues that popular culture became so important in America because of changes in American society. He writes that in the 1920s, in "an increasingly mobile and fluid society, Americans no longer wanted to be identified by class, ethnicity, or region. But to be a Cadillac driver or a Valentino worshipper or a science fiction reader gave a sense of self and community, especially to young people trying to draw black-ink borders around themselves in a world of runaway change" (36). Jones is arguing that popular culture was

used to form identity in a new way, instead of forming identity based on class, race, and regional background in the old-fashioned traditional way.

위의 인용 방식에 대해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참고하십시오.

1.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인용은 MLA 인용 형식입니다. 이 MLA 형식은 저자와 책 이름을 원문 내에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경우에 괄호 안에 페이지 번호를 씁니다. 그러나 반드시 MLA 형식을 사용할 필요는 없고, 주석이나 그 외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방식은 연설을 할 때보다는 에세이를 쓸 때 더 중요합니다. 관중 앞에서 쪽수를 소리내어 읽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2. 읽기 전에는 "Quote"이라고 말하고 인용구가 끝나면 "Unquote"라고 말합니다. 발표시 인용 문구의 중요 부분을 파워포인트 화면에 띄워서 인용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더불어 따옴표를 사용하면 다른 사람의 자료를 인용한다는 확실한 표시가 될 것입니다.

3. 위의 예에서 보여준 인용문구는 길이가 상당히 긴 편입니다. 인용문구가 세줄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들여쓰기를 해서 따옴표 없이 분리해서 표기해야 합니다.

In Men of Tomorrow: Geeks, Gangsters, and the Birth of the Comic Book, Gerard Jones argues that popular culture became so important in America because of changes in American society. He writes that in the 1920s, in

an increasingly mobile and fluid society, Americans no longer wanted to be identified by class, ethnicity, or region. But to be a Cadillac driver or a Valentino worshipper or a science fiction reader gave a sense of self and community, especially to young people trying to draw black-ink borders around themselves in a world of runaway change. (36)

Jones is arguing that popular culture was used to form identity in a new way, instead of forming identity based on class, race, and regional background in the old-fashioned traditional way.

이 사항은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핵심사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 내용을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 띄울 경우 따옴표를 사용해서 인용문구를 정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긴 인용문구를 들여쓰기로 분리하는 것은 에세이나 논문을 작성할 때 해당되는 내용이므로 프레젠테이션 관련 문건을 작성할 때 적용하면 됩니다.